

첫째주 소그룹모임 / 본문 사도행전 4:5-12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새96 (통94) 예수님은 누구신가

새93 (통93)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새369 (통487)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 여는 질문

성지순례의 경험이 있다면 가장 은혜를 받았던 여정이나 순간은 언제였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때 인생의 머릿돌과 같은 소중한 신앙적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과 제자들의 성지, 사도바울의 선교여행의 발자취, 종교개혁자들의 도시들, 요즘은 한국의 초대교회의 성지와 첫 선교사님들과 관련된 성지들이 있다. 이런 다양한 믿음의 선배들의 여정들과 관련된 장소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자신의 신앙과 관련된 소중한 장소에 대하여 서로 나누도록 한다.]

2. 본문 이해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의 여정과 사도 요한의 사역의 현장들을 중심으로 순례의 길을 다녀온 적이 있다. 바울의 주요한 선교 사역지였던 소아시아 지역과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지금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장소인 밧모섬과 계시록에 언급된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 중 몇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발자취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거닐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에 서있도록 허락받은 것 자체가 감사고 은혜였다. 그런데 그 옛날, 첫 성도들의 발걸음들을 생각할 때마다 인간적인 마음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다.

그 길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걸어왔던 그 고통의 여정 길을 오늘 우리들이 따라 걸어가면서 한없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그곳에는 무너진 교회터와 돌무더기의 흔적 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곳을 바라보는 내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다. 신기하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1절). 첫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의 소중한 머릿돌이, 신앙의 거인들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신앙의 현장을 보면서 그들의 희생과 고생이 오늘 그리스도 신앙의 꽃을 피웠고, 구원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 또한 그 신앙 선배들이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었고,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다른 사람이 버린 것이 내게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고, 내가 버린 것이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소중한 것의 가치를 미처 깨닫지 못하여 버리게

되고, 후일에 그 가치를 깨닫고 후회하기도 한다.

베드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하여 말씀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들은 각자 인생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들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들이다.

그 기초에 어떤 돌을 사용하느냐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기초에 사용할 머릿돌을 선택해야만 튼튼한 집을 세울 수 있다. 우리들에게 그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머릿돌은 건물로 비유할 수 있는 우리 신앙과 삶의 기초를 상징하고 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신앙과 삶의 기초적인 것이다.

3. 말씀 속으로

1) 사도들을 심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5-6절)

초기 기독교를 박해한 이들은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는 초기 기독교시대에 유대교 대제사장들이다(약 AD6-36). 특히 안나스는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배후(背後)에서 실제적인 세력을 행사했던 인물이었다. 요한과 알렉산더는 잘 알 수 없으나, 가야바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으로 여겨진다.

2) 병자들의 치유와 구원에 대한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9-10절)

사도는 여기서 거부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 다섯 가지를 증거한다.

(1)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중대한 사실을 선포할 때마다 자주 쓰는 권위있는 명령형이다. 이는 증거하는 내용의 중대성과 사실성을 암시한다.

(2)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예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한 그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다.

(3)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너희'가 죄인 취급하여 죽였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사도는 담대히 확신에 차서 증거하였다.

(4)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앓은뱅이였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케 된 것을 증거했다.

(5)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들 옆에 서 있는 고침받은 자의 생생한 모습 때문에 저들은 힐책할 수도 없고, 그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상의 증언을 통해 사도의 증언에는 위대한 복음 진리의 핵심이 담겨 있음을 본다.

3) 11-1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는가?

11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 이것은 시 118:22의 인용으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 건축자들에게는 쓸데없다고 버림받은 돌과 같이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자기 우편에 두시고, 권능과 영광을 홀로 차지하게 하셨으며 만민을 구원하는 기초로 삼았으니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셈이다.

12절: 사도는 이제 예수 외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선포한다. 이 구절은 불변의 진리로서 다음의 두 가지 교훈을 제시한다. (1)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 무이한 구세주이시다는 사실이다. (2)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앓은뱅이였던 사람을 고친 것과 같은 육적 구원 뿐만 아니라 죄와 그 세력 그리고 죄의 형벌인 죽음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의미한다. 즉 메시아로 말미암은 완전한 구원을 의미한다.

4. 삶 속으로

1) 초대교회 현장을 찾아가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자신들의 머릿돌 삼고, 십자가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것을 실감하게 된다. 남들이 볼 때는 불품없는 모습이었으나 참으로 측은하기 그지없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신앙과 삶의 머릿돌이 되는 순간 그들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 삶의 근원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2) 주위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실망시키면 시킬수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삶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삶이 아프면 아플수록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자신이 가진 믿음이 약해져갈 때 어떻게 극복해 가고 있나요?

5. 암송구절 : 사도행전 4: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6. 자녀와의 나눔

1)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2) 몸이 아플 때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다. 왜 그럴까요?

둘째주 소그룹모임 / 본문 사도행전 6:1-7

문제를 넘어서는 신앙

새412 (통469)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새370 (통455)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새325 (통359) 예수가 함께 계시니

1. 여는 질문

우리 인생의 잘못된 등식 가운데 하나는 '행복한 인생 = 문제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상상해 보라. 우리 인생이 계속 행복해질 것 같은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2. 본문 이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우리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다닌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문제없는 교회가 발견했다 치자, 우리가 그 교회에 출석하는 순간 그 교회에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 기가 막힌 일 아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요, 사랑이 넘쳤던 교회이다. 얼마나 사랑이 넘쳤는가? 성도 가운데,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성도에게 나누어 주었다.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는가? 한 주일에 3천명이 회개하고 등록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였다. 심지어 앓은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등장했는데, 그 문제는 바로 분열과 원망의 문제였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는 가운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고향에서 그대로 살아온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그들은 히브리말을 썼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사람들도 있었다. 이 사람들은 언어가 달랐는데, 헬라말을 주로 사용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파 과부에게는 쌀이 잘 배급이 된 반면, 외국에서 들어온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쌀 배급이 잘 되지 않아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원망은 무서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했는지 아는가? 원망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

우리 마음 또는 공동체 안에 원망이라는 것이 생기면, 이상하게도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자꾸 뒤에서 속삭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원망스럽게 보이는 것이다.

오늘 본문 속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왜냐하면 원망의 씨앗,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망시켰던 주요한 원인이었고, 그 원망이 지금 밑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누구나 다 제자라고 불렀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는가? 한 두 사람이 일하라고 이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니다. 고민도, 기쁨도 같이 해야 되고, 역할도 같이 함으로, 일을 분담해야 한다. 예루살렘 교회는 일꾼 사람을 뽑아서, 구제하는 일을 맡겨버린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서로서로 짐을 나누어질 때, 커 보이는 문제가 우리도 모르게 해결될 줄로 믿는다.

3. 말씀 속으로

1) 초대교회 교회 안에 생긴 첫 번째 갈등의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했고, 사도들에게 초래된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이었나? (1-2절)

'히브리파 사람'이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 성장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며, '헬라파 유대인'이란 각처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Diaspora) 출신의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당시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람어(히브리 방언)를 사용했으며, 적어도 약간의 헬라어는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어는 지중해 동쪽 지방의 국제 통용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전혀 모르거나 약간 알고 있으면서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다. 한편,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보다 선민적 배타 의식이 더 강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게된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 그들은 매일 매일의식량 배급이나 생필품 지급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푸대접을 받거나 더러는 누락이 되어 불만을 표했던 것 같다.

따라서 이들의 원성이 교회 안에서 높아감에 따라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에 나서게 되었고, 교회 내에 구제 사업을 비롯한 행정적 일들이 날로 늘어감에 따라 사도들은 정작 주력해야 할 복음 증거 사역에 자연스럽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2) 문제해결을 위해 몇 명의 사람을 세웠고, 천거의 기준은 무엇이었나? (3절)

제일 먼저 거론된 기준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복음 전파와 교회 확장의 주요 동인(動因)이었기 때문이다. '지혜의 충만함'은 성령 충만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지혜의 충만함은 곧 성령 충만의 증거도 되며, 실질적인 일 처리에 필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칭찬듣는 사람' 즉,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이다.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신앙 인격 또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일곱의 일꾼을 세워 일을 분담한 결과 사도들에게 회복된 것과 공동체에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었나? (4, 7절)

6장의 일곱 일꾼을 일곱 집사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http://www.leesangjun.org/?p=460> / 일곱 집사는 있다? 없다?), 일곱 일꾼이 평신도인지, 목회자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역의 내용을 살핀다면 평신도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의 기본적인 사역의 방향이 제시된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안의 사무 행정 등의 문제를 담당한다면, 목회자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할 것이다.

7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를 질적으로 계속 자라게 하시며 또 양적으로도 믿는 자의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하셨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의 한 예로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실이 언급되는데 이는 예루살렘 성 내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으며 유대교 내에서는 치욕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기조차 했을 것이다.

4. 삶 속으로

1) 전화위복의 의미를 '불행은 행운이 가까이 있음을 알려주는 징조'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바닥을 치고 일어나는 힘'이라 말하기도 한다. 살아오면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은혜가 있는가? 한번 서로 나누기를 바란다.

2) 대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모든 일을 혼자 떠안고 있는 것이다.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생각해 보고, 서로 짐을 나누고,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5. 암송구절 : 사도행전 6: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6. 자녀와의 나눔

1) 어려움이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2) 혼자서 모든 일을 다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셋째주 소그룹모임 / 본문 사도행전 17:10-15

너그러우나 간절한 믿음

새384 (통434)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새430 (통456)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새540 (통219)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 여는 질문

모두가 좋다고 여기는데도 나는 싫을 수가 있다. 반면 모두가 싫다는데도 나는 좋을 수가 있다. 좋고 싫은 것이 내 개인적인 판단이라면, 옳고 그른 것은 공적인 판단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싫으면 모두가 옳다 해도 아니라 우길 때가 있다. 그렇지 않은가?

이영미의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책 중에서

“남이 출세하면 워낙 아부를 잘해서이고, 내가 출세하면 워낙 능력이 탁월해서이다. 남이 회사에 일찍 출근하는 것은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이고, 내가 일찍 출근하는 것은 회사 일에 열심이기 때문이다. 남이 똥똥한 것은 많이 먹고 빈둥거리서이고, 내가 똥똥한 것은 천성이 착하고 낙천적이어서이다. 남이 많이 먹는 것은 식탐이 유독 많아서이고, 내가 많이 먹는 것은 식욕이 왕성한 때문이다.

남이 해외여행을 하면 사치 낭비 풍조이고, 내가 해외여행을 하면 요즘 세상에 해외 여행하는 것도 흥이 되나. 남이 하면 부부싸움, 내가 하면 사랑싸움이다.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이다. 남이 못생기면 우습게 생긴 거고, 내가 못생기면 부담 없이 생긴 것이다.

남이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알팍한 감상 때문이고, 내가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감수성이 예민해서이다. 남의 목소리가 큰 것은 주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몰상식 때문이고, 내 목소리가 큰 것은 원래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호탕하기 때문이다.”

2. 본문 이해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벌어진 난동 때문에 베뢰아로 피하게 된다. 물론 바울과 실라는 베뢰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 베뢰아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태도를 살펴보자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너그러웠고, 바울과 실라의 말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바울이 전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더욱이 그들에게는 바울과 실라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다. 대화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가? 그건 무엇보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다.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또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즉 열정적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데서 특별함을 찾을 수가 있다. 물론 바울과 실라가 베뢰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전한 말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베뢰아 사람들은 여태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과는 다른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기에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우리가 몰랐던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먼저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였던 것이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이다. 오래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운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아주 중요하고,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을 배워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거듭 거듭 읽다보면 전에 읽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다시 깨달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목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깨달아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깨달으면서 상처가 치료가 되고,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도록 항상 기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깨달은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언제든지 베뢰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것이다.

3. 말씀 속으로

1)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 중 마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어디인가? (10절)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원칙을 고수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곳에서만 아니라 사도행전 13~28장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선교행적에서 볼 수 있는데, 즉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에 이르는 이방 문화권 선교 과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간 이유는 구원사에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포되어야 한다”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기도 했지만, 그곳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약과 유대교를 알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기엔 준비된 사람들이 많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로는 당시 유대인의 회당은 그들의 예배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여행객의 숙소나 직업 알선소, 혹은 유대인들의 모임의 장소로서 그들 삶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바울에게는 처음 방문하는 낯선 도시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회당에서 방을 얻어 머무는 것도 중요했고, 또 직업 알선을 받는 곳이기도 하고 선교여행 경비를 조달하는 역할을 했던 곳으로 새로운 도시에 가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를 시작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는 회당 예배의 참석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회당에서는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 때마다 사회를 보는 회당장이 있었다. 회당장은 매 안식일마다 정해진 성경을 읽고 회중에게 “누가 성경 말씀을 잘 강해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겠는가?” 라고 물었다. 바울은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약을 강해하고, “이 예언이 예수에 의해 성취되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라고 선포하곤 했다. [<http://m.blog.daum.net/indaep/1577>]

2) 데살로니가 사람에게 비해 베뢰아 사람들이 가진 장점은 무엇이었나? (11절)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바울은 환영을 받지 못했고, 소동에 휘말려 폭동 가운데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 결국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 사람들’(17:6)이라는 공격을 받는 지경에 처하였다. 이런 박해의 상황 가운데 동료들과 바울을 밤을 이용해 베뢰아 행을 택하게 되었다.

베뢰아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선용한다. 이곳에서도 그는 이전의 다른 도시들에서 했던 사역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한다. 베뢰아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으므로 바울은 그 곳에서 ‘자신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뢰아의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정중하고 편견 없이 들어 주었다. 본문에서는 그 곳에서 한 바울의 설교 내용이 나타나고 않다. 하지만 그의 설교가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을 스스로 연구해 보도록 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제 이 유대인들 곧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보다 더 신사적이어서(편견이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 단지 일 주일에 안식일에만 바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를 만나 매일 대화를 나누면서- 성경을 상고 했다(11절). 누가는 분명 바울의 설교에 대한 그들의 열심 및 성경 연구에서의 그들의 근면함과 편견없는 개방성을 함께 칭찬하고 있다.

3)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행한 일은 무엇이었나? (13절)

바울은 또다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로부터 새로운 반대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베뢰아에서 선교활동의 소식이 데살로니가의 사악한 유대인들의 귀에 들어가자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베뢰아까지 달려왔다. 이들은 똑같이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켰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4. 삶 속으로

1)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어나가야 그 바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인가?

2) 깨달은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를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5. 암송구절 : 사도행전 17:11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6. 자녀와의 나눔

- 1)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나요?
- 2) 그러면 성경을 더 많이 읽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았나요?

넷째주 소그룹모임 / 본문 사도행전 28:23-31

멈출 수 없는 사도행전

새496 (통260) 새벽부터 우리

새508 (통270)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새511 (통263) 예수 말씀하시기를

1. 여는 질문

먼 길을 갈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미워하는 사람과 가면 1마일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것이다. 그렇게 함께 동행하며 힘든 길이라도 마다않고 함께 가줄 친구가 있는가?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란?" 질문을 현상 공모했습니다. 독자들로부터 비행기, 기차, 도보 등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과연 1등으로 당선된 답은 무엇이이었을까요? 의외의 답이 1등으로 뽑혔습니다. 바로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재미있게 갈 수 있으니 지루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1등이 되었을 것입니다

친구는 영어로 FRIEND입니다. FRIEND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F'ree [자유로울 수 있고], 'R'emember [언제나 기억에 남으며], 'I'dea [항상 생각할 수 있고], 'E'njoy [같이 있으면 즐거우며], 'N'eed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고], 'D'epend [힘들 땐 의지할 수 있는 귀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2. 본문 이해

사도 바울의 생애는 그와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과 함께 했다. 바울의 생애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누가의 손을 거쳐 기록된 사도들의 행적은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을 그리며 마감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 여전히 옥중에 있음에 불구하고 계속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복음증거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사실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도행전이 우리를 통해서 쓰여지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제2의 사도행전은 "멈출 수 없는 사도행전, 계속되어야 할 사도행전"이라는 의미이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1장 8절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전도"이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전도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방선교는 바울에 의해서 열매 맺게 되었다.

21세기에 새로운 사도행전을 쓰기 위해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 보자. 새로운 사도행전을 쓰기 위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하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일과 흠어져서 복음증거하는 일이다. 주일에 모여

예배드림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 옛새를 위해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고, 하루를 위해 옛새를 사는 사람이 있다. 주일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주중의 삶을 위해 주일 하루를 보핌 삼아 지내는 신앙인이 있다. 그런가 하면 주일 하루를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 6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한가정이 한가정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배가 성장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잃은 양을 찾아 나서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자. 사도바울은 사람들이 듣던 듣지 않던, 혹 말씀을 인정하던 하지 않던 간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일을 권했다 (30-31절)

다시 기록되어야 할 사도행전은 우리들의 몫이다. 옆사람의 일도 아니요 다른 사람이 써야 할 책도 아니다. 바로 내가 써야 한다.

3. 말씀 속으로

1) 사도행전의 주제인 1장8절을 한번 외워보자.

(행 1:8, 개정)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사도행전의 기록목적

사도행전은 ① 교회의 시작과 복음전파에 따른 집회 형태를 소개하고 ② 기독교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변증하기 위함이며 ③ 유대교와 이교도에게, 로마와 헬라사회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알려주고 ④ 기독교 교회형성의 기초 지침서가 될 것을 의식하였으며 ⑤ 기독교의 박해 속에서 성장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묘사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모임에서 모임으로 끝이 납니다. 성령으로 모이고 성령으로 하나님나라를 가르치며 (바울이 로마에서) 전파할 때 금하는 사람이 없었음을 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 사도행전의 주제와 중심사상

특징적인 주제를 보면, ① 성령의 사역과 그 역할(오순절 역사), ② 새로운 선교의 열풍(복음전파의 역사), ③ 새로운 회심운동과 개종 사건(교회형성의 역사), ④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생활(예루살렘 성도들의 하나됨의 역사), ⑤ 유대인들의 교회핍박과 모함(수난역사), ⑥ 전도, 설교, 토론, 권면의 계속(증거역사), ⑦ 선교의 확장(사도 바울의 선교역사), ⑧ 베드로와 바울의 투옥(재판의 역사) 등입니다. 핍박 없이 성령의 불과 선교의 불은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심사상은 살아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를 믿으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한 복음전파사상”입니다.

[<http://profpaulchoi.blogspot.com/2014/01/acts-of-apostles.html>]

2) 바울은 거동이 제약된 상황에서도 어떻게 증언하고 무엇을 권했고, 그 결과는 어떠했나?

(23-24절)

먼저 왔던 사람들이(17절) 바울에게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껴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는지 아니면, 처음 만났을 때는 상견례만 하고 낱짜를 따로 정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로 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숙소에 모여왔고, 이렇게 하여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로 요약하며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핵심적이고 정확 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복음 선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이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현현되었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선포이기 때문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행한 바울의 증언은 노력에 비해 충분한 것은 아니었지만 몇 사람의 믿는 사람을 얻었다. 유대인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믿음을 갖게 하려는 바울의 노력이 극히 부분적으로만 성공을 거두었던 경우는 본서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았고 동족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3) 바울은 로마 땅에서도 열심히 복음 전하였다. 그가 증거한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31절)

바울은 자기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여 복음 즉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로마 당국은 바울의 그러한 선교 행위를 방해 하지 않았다. 저자 누가는 복음이 로마 당국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 전파 될 수 있기를 바랐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했던 반면(21:27-36; 23:1-15), 로마에서는 복음이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전파되었다. 이것은 바울에게 주어진 소명과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22:21; 23:11).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으며, 누가는 본서를 매우 간략하게 끝을 맺고 있지만, 마침내 복음은 로마와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될 것을 내다보는 원대한 소망이 있었을 것이다.

4. 삶 속으로

1) 영국의 한 일간신문사에서 재미있는 질문을 내고 가장 멋진 대답을 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광고했다. 질문은 "런던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많은 엽서들이 도착했다. 그런데 상금을 탄 답변을 이려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 답에 대해 생각해 보고, 나에게 가장 좋은 동행자는 예수님이라고 답할 수 있나?

2) 10달 동안 태아를 품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를 얻기 위해 오랫동안 품자. 기도로 품고, 사랑으로 품고, 인내함으로 품고, 나눔으로 품자. 개인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는 방법이 있다면 서로 함께 나누어 봅시다.

5. 암송구절 : 사도행전 28:31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6. 자녀와의 나눔

1) 친한 친구를 교회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교회로 데려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인디안 보호구역이나 아프리카나 남미로 선교여행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바울의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나요?